

의와 가장 유사하게 보인다. 그러나 그는 복수심을 조장시켜서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. 그것은 이 편지의 처음 구절 “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하느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자랑하고, 부요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시오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. 그가 지향하는 바는 뒤집어엮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다. 이 평등은 강제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.

그는 거둬 부에서 어떤 삶이나 힘의 보장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역설함으로써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한다(1, 11·5, 1 이하).

3. 맺는 말

이상에서 분명히 주장할 것이 있다.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‘가난한 자’로 임명됐는데, 현재까지는 그것에 반역하는 세력들이 바로 역사의 표면에 나섰다는 사실이다. 그러나 동시에 결국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점점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지향점이라는 사실이다.

■ 『현존』 제91호, 1978년 5월호에 수록.